

지역 매아리

부안군,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참가 판매활동 전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019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해 농·특산물 홍보·판매활동을 전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엑스포에는 죽엽과 잣갈, 가공식품 등 부안군 관내 8개 업체가 참가했다.

특히 부안군 우수 농·특산물인 개암죽, 열, 곱소젓갈, 표고버섯과 어간장, 계란밥, 아로니아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선보여 국·내외 바이어와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0월 31일 개막식에 참석해 부안군 참가업체를 격려하고 다양한 농·특산물을 직접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펼쳤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부안군의원들도 동참해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에 앞장서는 등 참가업체의 마케팅 활동을 지원했다.

권 군수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부안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명품 발효식초산업 선도

고창군, 전국 최초 '식초문화도시' 선포... 농과원 자체개발 우수 식초 증정

농생명식품수도 고창군이 지역의 자연과 먹거리를 활용한 식초문화도시로 발돋움 한다.

지난 1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식초문화의 중심,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주제로 '식초문화도시 고창 선포식'이 열렸다.

행사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및 고창군의회의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 각 기관사회단체장, 농업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현행열 소장은 식초문화도시 비전발표에서 "북분자 등 고품질 원재료의 1차 생산에 머물지 않고, 가공, 유통, 판매,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초 산업은 농생명식품 수도 고창의 미래를 밝혀 줄 불부오션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향후 모든 군민이 식초를 만들 줄 알고, 마시는 문화를 만들어 천년을 이어 갈 식초 성지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이 자체개발한 우수 식초를 유기상 군수에게 전달하며 의미를 더했다. 씨초는 식초를 만드는 종자라는 의미인데, 모균 또는 모초라고도 하며, 간장으로 보면 씨간장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식초 맛을 좌우한다.

이용범 원장은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기술이 청정지역 고창의 농산물과 만나 식초문화산업을 이끄는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에 발효·가공 기술을 결합해 농업의 변화와 소비 확산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의사 한동하 원장이 '내 몸을 살리는 식초와 건강'을 주제로 특

강을 펼쳤다. 한 원장은 "신맛은 기운을 수렴하면서 진액을 만들어 건조함을 막아주고 폐기능을 좋게 한다"며 "전통발효 식초는 요즘같은 환절기에 피로를 해소하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부대행사로 국내외의 500여점의 식초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관과 북분자 발사믹 식초를 곁들인 아이스크림·음료 시음행사도 열려 발걸음이 이어졌다. '고창군발효식초연구회'에서도 청정 고창의 농산물로 만들어진 과일 발효식초를 모든 참석자에게 증정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식초를 기반으로 성장한 해외도시처럼 고창의 청정 이미지와 품격있는 농산물에 슬로푸드인 식초를 결합해 대한민국 식초문화 산업을 이끄는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국한우협회 정읍지부, 복지단체에 한우 나눔 행사

전국한우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나희주)는 지난 1일 지역 내 복지단체와 학교에 한우고기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정읍시지부는 지역 내 복지단체 14개소에 한우고기 130kg(500만원 상당)과 7개 학교에 급식용 한우고기 310kg(1,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해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은 한우를 사랑해주는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을

보답하기 위해 한우인들 스스로 제정된 날이다.

정읍시지부 나희주 지부장은 "안전하고 우수한 정읍 한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며 "회원 모두가 정성스럽게 기른 고품질의 한우 나눔을 통해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 정읍시지부는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꾸준히 한우고기를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산불 예방 '총력'

정읍시가 가을철 대형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날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시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를 운영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평일과 주말에 읍면동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감시카메라 5개소를 활용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산불감시원의 적극적인 산불감시와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진화차·급수차·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수시로 점검해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한다.

더불어, 산불 예방 홍보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무인방송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올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성사원을 산불로 보호하기 위해 산림을 띠 모양으로 묶어 산불방지 이격 공간을 조성해 불에 강한 수종을 식재할 예정이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주변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유진섭 시장은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단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취약지를 대상으로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하는 등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위기 청소년 위한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 운영

정읍시는 지난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위기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 13회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학교 내외에서 교칙을 위반해 사회봉사를 부여받은 학생과 경찰서에서 절도 및 폭력 등의 사유로 선도 교육이 의뢰된 청소년 등 8명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행과 일탈 행동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문제 청소년으로 낙인되거나 이들의 비행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통해 비행을

멈추게 하고 행복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 과정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 분노 조절 교육, 청소년 근로 보호 교육, 금연교육 등의 선도 교육이다. 또, 아양사립숲과 단풍생태공원에서 청소년의 심신과 건강을 도모하는 아이프로그램도 병행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지지체계가 되어줘야

한다"며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청소년 유해물질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읍교육지원청과 정읍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술,담배)에 접촉하기 쉬운 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청소년 유해물질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변산면,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책과 담소'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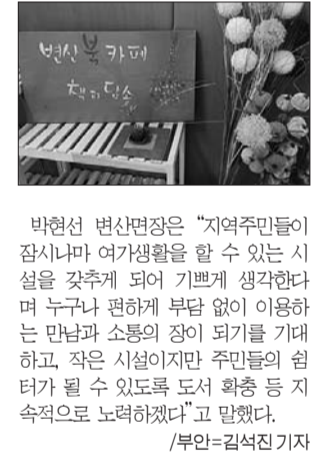
변산면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 활용, 직원들의 독서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책과 담소'가 재정비를 끝내고 4일부터 정식 개관한다.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이 차를 마시며 대화도 나누고 독서를 통해 마음의 여유와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맞추어 재정비하였다.

변산면 주민자치센터 '책과 담소'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 독서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도서 및 휴게공간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공간 활용을 최대화하고, 신간서적·문화도서 및 어린이 도서 등과 컴퓨터, 프린터를 비치하여 방문하는 주민들이 편히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기증받은 책은 따로 공간을 두어 배치할 예정이며, 책을 기증한 주민들의 명단을 북카페 운영에 손수 기여했다는 보람을 안겨주고 지속적으로 도서를 기증하는 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25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오전 10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정읍의 힘찬 도약! 시민과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 성황... 명예시민 패 수여·축하 공연 등

정읍시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정읍의 희망과 도약을 다짐하는 제25회 정읍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오전 10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 시장과 최낙산 시의회의장, 유성열 국회의원, 홍철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 자매도시인 성북구 이승로 구청장과 임대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축하를 위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정읍시초등학교 윈드오케스트라부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정읍의 희망과 비전을 담은 동영상 상영과 명예시민 패 수여, 시민의 장 수여, 기념사(축사), 시민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스트롯 출신의 인기 트리트 가수 홍자와 가수 김연숙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시민의 날 행사의 꽃인 정읍시민의 장은 문화장에 (사)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 상임고문 김동길(78세), 공익장에 해화당한약방 황승석 대표(77세), 애환장에 재경정읍시민회 김현덕 부회장(66세), 효열장에 송산재(80세)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정읍시에 기업체 운영을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철호 국회의원이 정읍명예시민패를 수여받았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 받은 자랑스러운 정읍시민이다"며 "무성사원이 세계의 자랑이 되었듯이 대한민국의 희망, 세계가 주목하는 정읍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민의 날이 정읍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해 모두 함께 손을 잡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세트 | 750ml 2ea, 2ea/16%

GIFT SET 2세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트 | 750ml 1ea/12%

GIFT SET 4세트 | 500ml 2ea, 2ea/12%

GIFT SET 5세트 | 375ml 5ea/13%

GIFT SET 6세트 | 500ml 1병 2ea/12%, 복분자 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세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